



제목	기원전 6-5세기 헤브라이즘과 제국 열강들의 종교적·문화적 융복합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한국문화융합학회
발행일	2016. 10. 30.
저자	소형근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199-224
ISBN 또는 ISSN	1225-0422

내용 요약

이 논문은 헤브라이즘이 기원전 6-5세기에 제국 열강들과 어떤 접촉이 있었으며, 또한 유대인들은 제국의 정신문화와 물질문화에 어떤 입장을 취했고, 그 결과 어떤 융복합적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규명한 논문이다. 저자는 이 논문에서 기원전 6-5세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을 배경으로 구약성서 자료들과 고고학의 연구 성과물들을 활용하여 헤브라이즘과 제국들의 종교적·문화적 관련 주제들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고대 이스라엘의 헤브라이즘이 주변 국가들 및 민족들과의 잦은 접촉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한다. 저자는 아시리아,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거대한 제국을 경험한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자신의 고유 종교와 문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때로는 제국들의 종교와 문화를 접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재창조하거나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그 사례를 보여준다. 이집트 종교를 경험한 엘레판틴 유대인들의 아낀-벤엘과 에셈-벤엘 숭배, 바벨론 포로 이후 지도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절대적 유일신 신앙을 강조하기 보다는 모세의 율법을 준수할 것만 강조한 것, 유대인들의 국제결혼 유행, 비히브리식 이름 작명, 페르시아와 그리스 화폐의 영향으로 인한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에서의 동전 주조, 유대인의 아람어 사용 비율 증가 등. 저자는 기원전 6-5세기 헤브라이즘이 주변 강대국에 영향을 주었다기보다는, 제국들의 정신문화와 물질문화에 동화되는 경향이 우세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자는 그것을 헤브라이즘의 포기라고 보지 않는다. 이후에 유대인들은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새로운 정신문화로서의 유대교를 정립해 나갔기 때문이다.